

문학의 콘텐츠화 전략 연구

- 일본의 고전문학 『겐지모노가타리』의 문화콘텐츠 양상을 중심으로 -

권연수*

ynsue@naver.com

Contents

- I. 들어가며 - 문학의 확장, 문학의 콘텐츠화
- II. 『겐지모노가타리』의 문화콘텐츠로의 확장 양상
 - 2.1. 『겐지모노가타리』의 향유사 개괄
 - 2.2. 문화예술콘텐츠로의 확장 사례
 - 2.3. 생활문화콘텐츠로의 확장
 - 2.4. 대중문화콘텐츠로의 확장 사례
- III. 문학의 문화콘텐츠로의 확장 기반 및 전략
 - 3.1. 전문가의 역할 - 학회의 역할
 - 3.2. 고급 창작자들의 역할 - 예술가, 장인의 역할
 - 3.3. 미디어믹스 전략과 매스미디어의 역할
- IV. 나가며

Abstract

本研究は、韓国学術振興財団の支援のもと研究された『学際間研究を通じた文学の拡張の可能性』の中の「現代の日本文学の現状と文学拡張の在り方について」の研究に基づいて行われたものである。韓国文学を世界に通用する文化コンテンツ化していくための方法論を模索するために、千年もの間日本人はもとより世界の人々に愛読され、様々な文化コンテンツとして拡張してきた『源氏物語』を取り上げ、その拡張の在り方を見ていきたいと思う。韓国では政府の支援のもと、韓国を代表する「文化原型」を取りまとめ、ポータルサイトで検索できるようにしており、キラーコンテンツ育成のための支援も惜しまず行われている。しかし、韓国でのこのような大規模の支援にも関わらず、単なる情報提供にとどまったり、単発性の利用にとどまったりしているのが現状である。そこで、本稿では、一つの文学作品がどれだけの広がりをもち、再創造され再利用されてきているかを示し、その基盤に存するものと専門家やマスメディアの在り方を検証することによって韓国における文学のコンテンツ化に方

* 세명대학교 일본어학과 교수

본 논문은 세명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向性を模索しようとしたものである。数多くのキラークンテンツを育成するのも大事だが、一方では日本の『源氏物語』のように一つのキラークンテンツに様々な分野の学術、芸術、先端技術が結集し、それぞれの長所と特徴をいかしたコンテンツが再創造されるとともに相互に相乗効果をもって多様に享受されていく在り方も考えていく必要がある。

Key Words : 源氏物語, 文学の文化コンテンツ, 源氏ブーム, 源氏文化(contents, cultural contents, Genji boom, Genji culture)

I. 들어가며 - 문학의 확장, 문학의 콘텐츠화

본고는 학술진흥재단의 지원 아래 이루어진 [학제간 연구를 통한 문학의 확장 가능성 탐구] 연구 중 하나인 [현대일본문학의 현상(現狀)과 문학 확장 양상에 관한 연구]에 기반을 둔다.¹⁾ 여기서 말하는 ‘문학의 확장 가능성’이란 인문학의 위기 속에서 디지털정보기술에 따른 문학환경의 변화로 인해 전통적 의미의 문학환경에 지각변동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을 주시하고 현대 일본 문학이 어떠한 확장 양상을 보이고 있는가에 대한 탐구를 의미한다. 즉 일본 문학이 디지털정보기술의 발전과 보급에 따라 전통적인 독자와 작가 간의 관계를 뛰어넘는 쓰기와 읽기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과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에 따른 패러다임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한 입장에서 현대일본의 문학상황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개관하고 기존의 문학이 어떠한 확장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의 가능성은 어떠한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문학 확장을 문학 범주의 확장, 문학을 담는 매체의 확장, 문학콘텐츠의 확장이라는 3가지 관점에서 현대일본문학의 확장 양상을 고찰하였다. 이에 이어 본고에서는 한국문학의 세계적인 문화콘텐츠화를 염두에 두며 지난 논문에서 지면 관계상 구체적 사례연구를 시도하지 못한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의 문화콘텐츠화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한국문학 확장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는 문화콘텐츠화에 대한 제언을 시도하고자 한다.

1) 「현대일본문학의 현상(現狀)과 문학 확장 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언어문화 제31집 (2005년 학술진흥재단 지원), 2008년 『학제간 연구를 통한 문학의 확장 가능성 탐구 - 한국, 중국,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의 경우를 중심으로』, 글누림 245-273쪽

1000년 전 궁녀였던 한 여성에 의해 집필된 『겐지모노가타리』는 1000년이라는 세월동안 일본인들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향유되어 온 일본을 대표하는 문학작품이다. 또한 『겐지모노가타리』는 일본의 문학텍스트 중에서 다른 미디어나 표현양식으로 변용된 사례로써 가장 규모와 범위가 큰 작품이기도 하다. 영화는 물론 TV드라마, 라디오 드라마, 만화, 애니메이션 등의 대중문화콘텐츠는 물론 전통극 가부키(歌舞伎)와 전통가면극 노, 오페라, 연극, 인형극 등의 극문화, 나아가서 전통의상 기모노, 공예, 향, 놀이 등 문화적 영역까지 폭넓게 확장되고 재생산되면서 현대에서도 일본 문화를 견인하고 있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최근에는 인터넷상에서도 『겐지모노가타리』를 하나의 문화콘텐츠로 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겐지모노가타리』가 현대 일본인들에게 여전히 유효성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변용의 대상이 되면서 변함없는 공감과 애정을 얻고 있으며 자국의 대표문학을 세계적인 대표문화로 승화시켜 향유하고 전승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한국의 경우도 ‘킬러콘텐츠’ 개발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더 큰 문화국가,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 하면서 문화향유 기반확대와 우리 문화의 위상제고 등 4대 중점시책과 15대 세부 실천과제를 발표하였고 나아가 2013년까지 세계 5대 문화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²⁾ 이와 함께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전통문화와 콘텐츠산업의 조우·성장을 위한 발전 전략을 모색하며 문화원형 콘텐츠의 활용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³⁾

『겐지모노가타리』는 명실상부한 일본의 킬러 콘텐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 『겐지모노가타리』가 오랜 향유기간 동안 어떻게 재창조되고 확장되어 왔으며 그것이 어떻게 현대 일본인들에게 수용되고 향유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문학의 콘텐츠화 전략을 생각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이다. 또한 고전의 현대화에 대한 연구는 현대 일본인 및 일본문화에 대한 이해에도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고전에 친숙하지 않은 학생들

2) 이고은, ‘문화관광부, 1억불이상 수출콘텐츠 30개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122290541&sid=010731&nid=007<ype=1>(검색일 2010.1.30)

3) 김미라, ‘한국콘텐츠진흥원, ‘2009 문화원형 컨퍼런스 개최’, [http://www.cadgraphics.co.kr/news/graphic_view.asp?seq=451&page=1&SearchPart=BD_SUBJECT&SearchStr=\(](http://www.cadgraphics.co.kr/news/graphic_view.asp?seq=451&page=1&SearchPart=BD_SUBJECT&SearchStr=(검색일 2010.1.30))

에게 풍부한 교육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II. 『겐지모노가타리』의 문화콘텐츠로의 확장 양상

2.1. 『겐지모노가타리』의 향유사 개괄

헤이안시대에 탄생하여 1000년이 넘는 세월동안 일본인들에게 사랑받고 끊임없이 재탄생되어 온 『겐지모노가타리』의 향유사는 실로 일본의 문화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깊이와 폭이 매우 심원하다. 『겐지모노가타리』가 일본의 대표 킬러 콘텐츠로서 특징적인 점은 단지 1000년 동안 계속 읽혀왔다는 사실 만이 아니라 수많은 독자들을 양산하면서 각 시대마다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재창조되어 왔다는 것이다.

『겐지모노가타리』는 성립할 당시에는 궁중에서 읽히지며 상류귀족들의 전유물이었으나 『사라시나일기(更科日記)』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점차적으로 중류 귀족까지 독자층으로 확산되어 갔다. 헤이안시대 귀족들에게 매우 인기있는 이야기로서 널리 읽혔던 『겐지모노가타리』는 인간의 심리나 연애사, 또한 일본의 미의식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관찰력을 그린 작품으로서 모노가타리의 규범이 되어 『하마마츠츄니곤모노가타리(浜松中納言物語)』 『사고로모모노가타리(狭衣物語)』 『요하노네자메(夜半の寢覚め)』와 같은 후기모노가타리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후기왕조모노가타리(後期王朝物語)로 분류되는 모노가타리들은 『겐지모노가타리』의 섬세한 묘사와 서정성, 풍아(風雅)를 추구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인물조형도 『겐지모노가타리』의 영향 하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겐지모노가타리』는 이야기로서만 읽혀졌던 것은 아니다. 헤이안시대 말기에 들어서면서는 국보 『겐지모노가타리에아와세(源氏物語繪卷)』에 의해 회화(繪畫)로도 향유가 되었고, 12세기에 들어서서 후지와라노 도시나리(藤原俊成)가 『롯빠쿠방우타아와세(六百番歌合)』에서 『겐지모노가타리』를 와카(和歌)의 서로 규정하고 「겐지를 읽지도 않은 가인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源氏見ざる歌詠みは遺恨の事なり)」라는 말을 함으로써 가인들의 필수교양서로 확고히 자

리매김을 하였다.

이미 고전이 된 『겐지모노가타리』는 본문을 이해하는 데 주석이나 해설이 필요하게 되면서 다양한 주석서들이 등장했고 시대가 흐를수록 언어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원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원전의 히키우타(引歌)나 고사의 고증, 해설 등이 덧붙여져 가면서 주석은 날로 방대해져 갔다. 이에 점점 확대되어 가는 주석과는 반대로 오히려 『겐지모노가타리』의 내용이 축소되어가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된다. 바로 梗概書라 불리는 다이제스트판이 등장하면서 독자층을 확대해 나갔다.

또한 『겐지모노가타리』는 읽는 책에서 벗어나 소유하는 것으로 권세를 과시하는 도구로도 향유되었다. 당대 권세가 후지와라노 미치나가(藤原道長)가 딸 쇼시(彰子)의 부탁으로 제작한 『겐지모노가타리』 호화본이 예상 밖의 화제를 불러일으키게 되면서 귀족들 사이에 『겐지모노가타리』 54첩을 소유하는 것이 유행으로 번지게 되었다. 당시는 인쇄기술도 없고 양질의 종이도 많지 않았던 시절이라 『겐지모노가타리』 54첩을 호화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단한 자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은 이후 중세의 무장들에게는 『겐지모노가타리』의 병풍이나 에마키(絵巻)를 제작하는 것이 유행을 하며 『겐지모노가타리』를 비호하는 자가 문화지배자로서 권위를 갖게 되었고, 에도(江戸)시대에 들어서는 지방영주의 딸이 결혼을 할 때 혼수품으로 지참하는 호화로운 장정과 칠 상자에 넣은 책이 처가의 권력을 상징하게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까지는 문학이란 사람에서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으로서 필사본에 의지해야 했었다. 사원에서도 제자승에게 필사를 허락한다는 것은 제자승의 실력을 인정한다는 중요한 뜻을 가진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필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오랫동안 『겐지모노가타리』는 귀족이나 무장의 전유물로 유통되고 향유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에도시대에 인쇄기술이 발명됨에 따라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인쇄술의 보급으로 당시의 번역이나 요약본이 출판되면서 서민들도 『겐지모노가타리』의 독자가 될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또한 상업의 발달로 경제력을 가진 서민층이 대두되었고, 그들을 독자로 겨냥한 『겐지모노가타리』의 재창작물이 다양하게 출판되면서 『겐지모노가타리』는 매우 다양한 콘텐츠로 변용되고 확장되며 향유되었다.

또한 『겐지모노가타리』는 서책 뿐 아니라 예능이나 공예 등의 문화로도 향유되었다. 『겐지모노가타리』를 소재로 한 가면극 노(能)나 인형극 죠루리(浄瑠璃)도 무대에 올려졌으며 가부키의 소재가 되기도 하였다. 왕조의 우아한 풍취를 동경하는 사람들을 위한 예술품이나 공예품들도 다수 제작되면서 다양한 계층이 각각의 자신과 맞는 방법으로 『겐지모노가타리』를 향유하게 되었다.

메이지 이후에는 더욱 다양한 『겐지모노가타리』의 향유가 이루어졌다. 특히 현대어 번역본이 출판이 되어 요사노 아키코(与謝野晶子), 다니자키 준이치로(谷崎潤一郎)의 번역본이 몇 차례에 걸쳐 출판되어 인기를 끌었고, 어서 웨리의 영어판 번역도 출판이 되면서 『겐지모노가타리』는 세계적인 명작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쇼와 초기에는 군부에 의해 ‘황실을 현저히 모욕하는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엄한 단속아래 연극의 상연이나 번역본 출간이 중단되기도 했지만 2차 대전 이후에는 단속이 없어지면서 자유롭게 『겐지모노가타리』의 향유가 이루어졌다.⁴⁾ 전후 자신감을 상실한 일본이 스스로 자신감을 되찾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는 이른바 ‘겐지붐’이 일어나면서 다니자키의 두 번째 번역이 삭제부분 없이 출간되기에 이른다. 『겐지모노가타리』의 다양한 콘텐츠화 작업이 매스 미디어와 함께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한 것도 이 시대 이후부터이다. 겐지붐을 타면서 이후 엔치 후미코(円地文子), 다나베 세이코(田辺聖子), 세토우치자쿠쵸(瀬戸内寂聴)등의 현대어 번역이 꾸준히 출판되기에 이른다. 또한 현대에 들어서도 『겐지모노가타리』는 끊임없이 문화콘텐츠로서의 확장을 이어가고 있다. 『겐지모노가타리』의 낭독회가 붐을 이루고 영화는 물론 연극, 오페라, 만화, 애니메이션화 되고 있는 것은 이미 주지하는 바이다. 이렇게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변용과 확장을 거치면서 일본인들에게 향유되어 온 『겐지모노가타리』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콘텐츠화되어 왔는지 각각의 콘텐츠로의 확장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4) 立石和弘(2000) 『『源氏物語』の加工と流通』 『겐지모노가타리』5号, 128쪽

2.2. 문화예술콘텐츠로의 확장 사례

2.2.1. 서책 출판물

『겐지모노가타리』는 크게 두 부류에 의해 향유되어 왔다. 한 부류는 학문적으로 『겐지모노가타리』를 정독하거나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로 대표되는 국학자들에 의한 새로운 읽기의 시도로 대표되는 지식인들의 학문과 연구로서의 향유이다. 또 한 부류는 『겐지모노가타리』의 원문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은 없으나 왕조 귀족사회에 대한 동경이나 『겐지모노가타리』의 분위기에 심취하고픈 폭넓은 독자층들이다. 『겐지모노가타리』는 이 두 부류의 향유층이 꾸준히 존재해 온 것이 『겐지모노가타리』를 1000년이라는 시간동안 향유케 한 기반이 되었다. 본고에서는 문학의 콘텐츠화에 초점을 두어 주로 후자에서 향유된 『겐지모노가타리』의 확장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에서 출판기술의 발명은 에도시대초기 간에이(寛永)연간(1624~43년)으로 알려져 있다. 목판인쇄 판본이 출판, 유통되면서 상업출판시대가 도래하고 귀족이나 승려를 중심으로 향유되어 왔던 서적을 일반서민들이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서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 점은 『겐지모노가타리』의 향유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됨은 말할 나위도 없다. 출판문화의 활성화에 따라 서민들을 겨냥한 오락성 있는 책들이 다수 출판되었고, 『겐지모노가타리』의 텍스트는 물론 다이제스트판 梗概書도 다수 출판됨으로써 『겐지모노가타리』는 귀족문화에서 서민들까지 아우르는 진정한 국민문학이 되어 갔다.

『겐지모노가타리』는 100만에 달하는 문자수와 54첩으로 이루어진 장편이며 430명이라는 다양한 인물이 등장하고 스토리도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원문을 읽는 것은 물론 현대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조차 전체를 독파하기가 쉽지는 않다. 따라서 가마쿠라(鎌倉)시대부터 무로마치(室町)시대에 걸쳐서 이미 『겐지모노가타리』를 이해하기 위한 주석서가 다수 쓰여지게 되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후에 쓰여지는 주석서는 앞서 쓰여진 주석서를 참고하여 쓰여지면서 후지와라노 고레유키(藤原伊行)의 「겐지샤쿠(源氏釈)」, 데이카(藤原定家:후지와라노 사다이에)의 「오쿠이리(奥入)」, 가와치본(河内本)계열의 「시메이쇼(紫

明抄)』, 요츠츠지 요시나리(四辻善成)의 「가카이쇼(河海抄)」, 이치쥬 가네라(一条兼良)의 「가쵸요세이(花鳥余情)」에서 나카노인 미치카즈(中院通勝)의 「민고 닛소(岷江入楚)」로 이어지면서 주석서는 점점 방대해져 갔다. 한편 날로 방대해져 가는 주석서와는 반대로 『겐지모노가타리』를 점점 줄여가는 흐름이 있었다. 바로 梗概書, 이른바 다이제스트판이 그것이다. 당시 가인들이나 렌가 가인(連歌師)들에게 와카(和歌)나 렌가(連歌)를 짓기 위해서 『겐지모노가타리』는 필독서였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교양이었다. 그러나 방대한 내용의 주석서를 참고하면서 『겐지모노가타리』 전편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의 전문가들에 불과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능한 시간을 들이지 않고 쉽게 『겐지모노가타리』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었다. 그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가마쿠라에서 무로마치시대에 걸쳐 다양한 梗概書, 이른바 다이제스트판 『겐지모노가타리』가 쓰여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다이제스트판 『겐지모노가타리』는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이 그려져 있는 책이 인기를 모았다. 삽화가 들어간 『에이리겐지모노가타리(絵入源氏物語)』는 226장의 그림이 들어가 있는 획기적인 텍스트를 최초로 선보임으로써 『겐지모노가타리』의 독자층 확대에 기여했다. 서민들이 『겐지모노가타리』를 읽게 되면서 보다 쉽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과 형식이 필요해졌고 그 해답이 그림을 넣은 다이제스트본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책은 『겐지모노가타리』의 또 다른 작품으로 문학의 확장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다이제스트판 『겐지모노가타리』의 서문을 살펴보면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쓴 책이라는 점과 『겐지모노가타리』의 입문서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⁵⁾ 이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그 이전 시대의 향유형태가 일부 지식인들의 교양과 학문적인 향유였던 것을 독자층을 확대하면서 출판부수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아동이나 부녀자도 읽을 수 있다는 평이함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겐지모노가타리』는 에도시대 전반에 걸쳐 이러한 시각적 요소를 가미하는 등의 재창조를 통해 매우 다양한 형태로 확대해 나갔고 다수의 향유자에 의해 향유되었다.

5) 伊井春樹(2007), 特別講演 「源氏物語の讀者たち—絵画化と出版」, 33쪽(国文学研究資料館)

문학의 또 다른 확장으로 일대 겐지붐을 이루었던 변안소설 『니세무라사키 이나카겐지(修紫田舎源氏, 이하 이나카겐지라 함)』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에도시대 후기에 류테이 다네히코(柳亭種彦)에 의해 쓰여진 이 소설은 『겐지모노가타리』의 시대설정을 무로마치시대로 바꿔서 아시카가(足利)家 장군의 아들을 주인공으로 한 권선징악의 이야기로 변안하였다. 이 책 또한 수려한 문장과 미려한 그림에 덧붙여 아름다운 장정까지 갖추어 당시로서는 우아하고 세련된 작품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이 때 이미 지금의 one source multi use가 이루어져 『이나카겐지』는 가부키로도 공연이 되고 浮世繪의 한 장르인 겐지회화(源氏繪)로도 작품화되어 일대 『겐지모노가타리』붐을 형성하였다. 이 소설은 1829년부터 1842년에 걸쳐 38편까지 출판되면서 당시 베스트셀러를 기록하였으나 덴포(天保)개혁 때 절판처분을 받아 중단되었다.

주석서, 다이제스트판 梗概書, 변안소설 이외에도 『겐지모노가타리』의 속어 번역을 시도한 미야코노 니시키(都の錦)의 『풍류겐지모노가타리(風流源氏物語)』이나 바이오겐지(梅翁源氏)의 『와카쿠사겐지모노가타리(若草源氏物語)』 『히나즈루겐지모노가타리(雛鶴源氏物語)』 『고하쿠겐지모노가타리(紅白源氏物語)』 『조쿠게겐지모노가타리(俗解源氏物語)』과 같은 확장양상도 보여졌다. 또한 교양으로서의 『겐지모노가타리』로서는 오라이모노(往来物)라고 불리는 교양서적을 통해 여성교육서, 유녀들을 위한 교양서 등이 출판되어 매우 활발히 향유되었다.

2.2.2. 회화

『겐지모노가타리』는 일본미술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먼저 『겐지모노가타리』가 그림의 형태로 표현된 것은 12세기 전반에 그려진 「국보 겐지모노가타리에마키(国宝源氏物語繪卷)」이다. 현존하는 에마키는 19개의 그림과 설명글(詞書), 그림이 없는 설명글(詞書)등이며, 전편의 4분의 1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그 기법은 야마토에(大和繪)를 대표하는 특성을 볼 수 있다. 『겐지모노가타리』라는 장대한 이야기 중에 어떤 한 장면만을 선택하여 그림을 그린 것이기에 그려진 장면선택을 봄으로써 당시의 화가와 독자들이 『겐지모노가타리』를 어떻게 읽고 어떻게 새로운 세계를 구축해 나갔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또한 에마키는 『겐지모노가타리』의 장면 장면을 각각의 구도에 따라 그려짐으로써 시각을 통해 감정이입이 용이하고 문자와 회화가 상승작용을 일으킨다. 요컨대 그림을 보면 『겐지모노가타리』의 장면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는 장치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후 『에이리겐지모노가타리(繪入源氏物語)』가 출판되면서 『겐지모노가타리』는 우키요에(浮世繪)의 소재가 되었다. 왕조의 화려한 의상을 입은 그야말로 왕조의 귀족 겐지의 그림부터 『이나카겐지』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던 아시카가노 미츠우지(足利光氏)를 그린 니시키에(錦繪)까지 다양하게 그림으로 재창조되었다. 『이나카겐지』는 처음부터 어린아이와 여성, 그리고 일반 대중을 독자층으로 겨냥한 것이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오락성이었다. 따라서 문장과 함께 그려지는 그림은 현대로 말하자면 만화와 같아서 글보다 그림이 더 중요시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화공의 지위는 매우 높았고 그림의 완성도에 따라 책의 판매고가 좌우되었다. 저자인 다네히코는 친분이 있었던 우타가와파(歌川派)구니사다(国貞)에게 그림을 맡겼다. 구니사다는 다네히코와 이미 다른 일로도 함께 작업을 했었고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화가였다. 『이나카겐지』는 다네히코가 사망한 후에 그의 제자가 이어서 작품을 썼다고 하는데 그 때까지 구니사다가 그린 그림이 총 천점 이상이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구니사다에 의해 확립된 겐지에(源氏繪)는 당시 우타가와파(歌川派)의 새로운 전통으로 계승이 되어 이후 많은 작품이 그려지게 되었다. 당시의 겐지에(源氏繪)작품들은 스토리텔링과 화제성, 유행, 그리고 최고의 기술력을 결합하여 우키요에(浮世繪)의 정점을 찍었다고 평가받고 있다.⁶⁾

2.2.3. 가부키(歌舞伎), 노(能)등의 극문화

『겐지모노가타리』는 일본의 전통문화의 큰 축을 이루고 있는 극문화로도 콘텐츠를화되어 오랜 시간동안 사랑을 받아왔다. 노(能)작품들 중에는 『겐지물(源氏物)』⁷⁾라고 불리는 작품군이 있다. 노(能)의 미의식인 「유현미(幽玄美)」와도 관

6) 源氏繪 <http://homepage2.nifty.com/ukiyo-e/profile/genji.htm> (검색일 2010.1.30)

7) 현존하는 謡曲 235곡 중에서 『겐지모노가타리』를 모티브로 하는 『겐지물(源氏物)』은 夕顔卷의 『半菰』와 夕顔』, 葵卷의 『葵上』, 賢木卷의 『野宮』, 須磨・明石卷의 『須磨源氏』, 滯標卷

런이 있다. 노(能)의 대표적 작가인 제아미(世阿弥)⁸⁾는 「유현무상(幽玄無常)」을 표현하는 여성의 풍체에 각별한 애정이 있었으며 그러한 표현을 위해 『겐지모노가타리』의 장면들은 매우 효과적이었던 것이다.⁹⁾ 또한 당시의 관객들이 무사들이나 귀족들과 같은 지식층이었기 때문에 노의 작가들도 전통문예나 불교를 소재로 작품을 썼기 때문에 『겐지모노가타리』가 소재로 한 작품들이 많았던 것이다. 그 중 가장 유명한 작품이 「겐지공양(源氏供養)」작품군이다. 인형극 조루리(浄瑠璃)와 가면극 노(能)에서 무대에 올려지는 「겐지공양」은 『겐지모노가타리』의 주석서인 『가카이쇼(河海抄)』에 언급된 이시아마절기필설화(石山寺起筆説話)¹⁰⁾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노(能)의 대본을 일컫는 요쿄쿠(謡曲) 「겐지공양(源氏供養)」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요쿄쿠에는 『겐지모노가타리』의 작가인 무라사키시키후가 『겐지모노가타리』를 집필한 죄로 지옥으로 떨어져서 공양을 받는다는 내용이 있어 「겐지공양」작품군에서는 『겐지모노가타리』의 작가인 무라사키시키후가 등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대에서도 무대에 자주 오르는 「아오이노우에(葵上)」는 제아미 이전 작품으로 작가는 알 수 없다. 좌대신의 딸이자 히카루겐지(光源氏)의 정실부인인 아오이노우에에게 귀신이 씌여 무당이 공수를 내리니 로쿠조노미야스도코로(六条御息所)의 원령이 나타나 葵上를 데리고 가려고 하지만 요코가와 승려(横川の小型)의 기도로 원령은 성불한다는 내용이다.

가부키에서도 『겐지모노가타리』는 무대예술로서 가부키자(歌舞伎座)등에서 꾸준히 공연되어 왔다. 가부키는 1603년 이즈모노오쿠니(出雲の御国)가 가부키

의 『住吉詣』, 玉鬘卷의 『玉鬘』, 若菜卷의 『落葉』, 宇治十帖·浮舟卷의 『浮舟』, 『源氏供養』의 총 10곡이다. 이 밖에도 松田存(1972) 『世阿弥と能の探求』(新読書社)에서는 폐곡(廢曲), 미간곡(未刊曲)까지 포함해서 31곡의 작품이 있다고 전하고 있다.(山本二郎, 『近代の享受と海外との交流』 「源氏物語」と舞台芸術, 19쪽)

8) 무로마치시대 초기의 노(能)배우(1363?~1443?). 배우, 작가, 이론가로서 노를 고도의 세련된 무대예술로 승화시킨 사람으로 『風姿花伝』로 대표되는 다수의 연극론을 남겼다.

9) 馬場あき子(1996) 『源氏物語と能』, 婦人画報社, 6쪽

10) 고주석에 『겐지모노가타리』가 현재 첫 권으로 되어있는 桐壺卷부터 쓰여진 것이 아니라 石山寺에서 須磨卷부터 쓰기 시작했다는 전승이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 전승은 역사적 사실에 위배되는 설화와 함께 무라사키시키후가 보살의 화신이라는 언급이 있다는 점에서 정설로 인정받지는 못했다. 따라서 근세 이후의 『겐지모노가타리』 연구에서는 이 설이 『겐지모노가타리』의 성립 및 구성을 고찰하는데 있어 근거로 채택되지는 못하고 있다.

춤(歌舞伎踊り)을 추면서 가부키가 시작된 후 점차적으로 일정한 스토리 구성을 가진 연극으로 진화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가부키 공연으로 최초의 기록은 1703년 이치무라좌(市村座)에서 상연된 「겐지60첩(源氏六十帖)」과 1717년 교토소운좌(京都早雲座)에서 상연된 「겐지공양(源氏供養)」이며, 가에이(嘉永) 연간(1848~52)에 류테이다네히코(柳亭種彦)의 『이나카겐지』를 각색한 연극이 큰 인기를 얻었다. 메이지에 들어와서는 1907년에는 「아오이노우에(葵上)」, 쇼와에는 1930년 「겐지모노가타리 아오이노마키(源氏物語葵の巻)」이 상연되었다. 이 두 작품은 모두 로쿠조노미야스도코로(六条御息所)의 원령을 다룬 것으로 작품 전체를 다루지는 못했다.¹¹⁾ 이후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탄압의 대상이 된다. 1933년 극단신극장(劇団新劇場)에서 무라사키시키후학회의 후원으로 상연된 『겐지모노가타리』는 당국의 기습단속에 의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일본 패전 이후에는 탄압도 사라지면서 본격적으로 『겐지모노가타리』가 가부키 무대에 서게 되었다. 현재까지도 가부키만을 상연하는 도쿄의 가부키자가 동긴자(東銀座)에 문을 연 것은 1889년으로 일본 최고의 가부키전용극장이자 흥행극장으로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겐지모노가타리』가 처음으로 가부키좌 무대에 오른 것은 1951년 3월이었다. 바야흐로 이전까지의 가부키에서는 볼 수 없었던 왕조의 궁정이야기가 무대에 올려진 것이었다. 후나하시 세이치(船橋聖一)각본과 다니자키 준이치로(谷崎潤一郎)의 감수 아래 11世 이치카와 단쥬로(市川團十郎)가 무대에서 대단한 반향을 일으켰다. 이듬해 1953년에는 메이지자(明治座)에서 호쥬 히데지(北条秀司)의 각본으로 「우키후네(浮舟)」가 상연되면서 가부키자와 메이지 자의 후나하시겐지(船橋源氏)와 호쥬겐지(北条源氏)라 불리며 라이벌구도를 형성, 겐지몐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¹²⁾ 『겐지모노가타리』의 가부키는 현대에도 꾸준히 상연되고 있으며 상연될 때마다 큰 인기를 모으며 티켓과워를 과시하고 있다.

가부키와 함께 일본만의 독특한 무대가 다카라즈카가극단(宝塚歌劇)의 뮤지컬 공연이다. 다카라즈카가극단은 1914년에 첫 공연을 가진 여성들만의 악극단이다. 소속 다카라즈카 음악학교(宝塚音楽学校)졸업생만이 무대에 설 수 있으

11) 山本二郎(1992), 『近代の享受と海外との交流』 「源氏物語」と舞台芸術, 20쪽

12) 立石和弘(2000) 『『源氏物語』の加工と流通』 『겐지모노가타리』5号, 129쪽

며 전원 미혼여성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외부 배우가 다카라즈카 무대에 설 수는 없지만 다카라즈카 출신 여배우들은 은퇴 후 연예계에서 많은 활약을 보이고 있다. 2001년 개봉된 「천년의 사랑 히카루겐지모노가카리(千年の恋 ひかる源氏物語)」에서 남자 주인공 역을 맡은 아마미 유키(天海祐希)도 다카라즈카 출신 여배우이다. 다카라즈카가극단에서는 1919년에 처음으로 「겐지모노가타리 사카키권(賢木の巻)」을 공연한 후 잠시 공백기를 갖고 나서 1952년부터 꾸준히 「겐지모노가타리」 「우키후네와 가오루노키미(浮舟と薫の君)」 「유메노우키하시(夢の浮橋)」 「오보로요겐지(朧夜源氏)」 「신 겐지모노가타리」 「겐지모노가타리 아사키유메미시(あさきゆめみし)」 등 다양한 『겐지모노가타리』 공연을 올리고 있어 『겐지모노가타리』의 대중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다카라즈카가극단은 다수의 고정팬을 확보하고 있어서 원전인 『겐지모노가타리』는 읽은 적이 없으나 다카라즈카 공연을 통해 『겐지모노가타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겐지모노가타리』는 다양한 극문화와 결합하면서 또 다른 창작의 세계에서 확장되고 향유되어 왔으며 대중의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꾸준히 그 시대정신과 부합하는 『겐지모노가타리』로 재창작되며 대중의 사랑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3. 생활문화콘텐츠로의 확장

『겐지모노가타리』는 문화예술콘텐츠 뿐만 아니라 생활문화콘텐츠로도 확장되어 일본문화의 근저를 이루며 발전해 왔다. 이번 장에서는 그 대표적인 생활문화콘텐츠의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2.3.1. 생활용품(調度品)과 혼수품

에도시대에는 판본뿐만 아니라 미려한 사본을 주문제작하는 이른바 혼수품 서책 출판업자가 존재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혼수용 서책(嫁入り本)인데, 혼수품으로 제작되는 필사본은 회화나 조각 작품과 마찬가지로 장정이나 글씨의 미려함이 일체가 된 하나의 예술적 표현인 것이다. 이 점은 일본의

서책문화에 관한 시선과도 연관이 되는 점으로, 책을 그저 ‘읽는’ 기능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는’ 기능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다. 이렇게 제작된 『겐지모노가타리』는 서가에 꽂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모임이 있을 때 창고에서 꺼내 와 계절이나 모임의 취지에 맞도록 장식을 해서 장식을 하고, 모임이 끝나면 다시 창고에 보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겐지모노가타리』의 문양은 기모노에서도 보여지지만 전통 공예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에도시대에는 혼수품에 장인들의 예술혼이 발휘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칠공예도 대표적인 혼례혼수품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명성이 높았던 것은 에도 3대 장군이었던 도쿠가와 이에미츠(徳川家光)의 장녀 치요히메(千代姫)가 혼례할 때 보내진 혼수품이었다. 당시 장인들의 기술을 총동원하여 호화롭고 완성도 높은 혼수품이 만들어진 것이었다. 전체적으로 도쿠가와 가문의 문양과 함께 『겐지모노가타리』의 경사스러운 하츠네권(初音巻)내용을 여러 그림으로 그려 넣고 있으며 금분(金粉)을 아낌없이 사용하여 호화롭게 제작되어 도쿠가와 장군 가문의 영화를 상징하고 있다. 또한 『겐지모노가타리』를 테마로 한 그림이 그려진 베타(硯箱)도 전해져 오고 있다. 이것은 『겐지모노가타리』가 가진 이미지가 왕조의 이미지로 우아하고 화려함은 물론 교양을 뽐내고 권세를 과시할 수 있는 도구로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3.2. 겐지향 (源氏香)

향도(香道)는 무로마치시대 말기에 성립하여 에도시대에 궁중에서 조향(組香)으로 발전하였다. 조향은 와카나 모노가타리의 주제에 따라 향목을 조합하는 것으로 문학과 매우 관련이 깊은 전통놀이이다. 그 중에서도 헤이안 왕조의 우아한 심미안의 대표격인 『겐지모노가타리』를 소재로 한 조향(組香)이 바로 겐지향이다.

조향이란 일종의 게임이다. 여러 종류의 향을 서로 조합해서 향을 후각으로 알아맞히는 놀이인데 겐지향에서는 다섯 종류의 향목을 각각 5포씩 25포를 준비하여 서로 섞은 다음 그 중에서 다섯 개를 골라내어 향을 피운다. 그리고 그 향을 순서대로 음미하면서 다섯 개의 향이 같은 향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그

림으로 그리는 것이다. 그 그림을 겐지향지도(源氏香之図)라고 한다. 향지도는 오늘로부터 순서대로 막대기를 5개 그리고 나서 향이 같다고 생각되는 순서의 막대기 위를 선으로 잇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총 52개의 도형이 만들어지는데 그 도형에 각각 「기리츠보(桐壺)」 「유메우키하시(夢浮橋)」를 제외한 『겐지모노가타리』의 권명을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그림을 그린 후 『겐지모노가타리』의 권명으로 대답을 하게 된다.

향지도는 일본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직선 디자인으로 기하학적인 문양이 에도시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 다방면의 문양으로서 활용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카루타같은 놀이도구, 과자의 소인(焼印), 다도의 도구에 그려지는 칠 그림(蒔繪), 건축 장식은 물론 가문의 문양이나 기모노나 보자기 등의 염색문양, 포장지 등 매우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왔다. 그러면서 각 권명의 그림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어 권명에 따라 『겐지모노가타리』 내용에 맞춰서 길한 것과 흉한 것, 계절 등의 의미로 통용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여주인공 무라사키노우에(紫上)의 병환과 죽음이 그려져 있는 미노리(御法)卷는 흉한 것으로, 반대로 하츠네(初音)卷는 정월의 초하룻날과 그 이튿날의 이야기이므로 매우 경사스럽다 하여 정월을 뜻함과 동시에 길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물론 겐지향은 『겐지모노가타리』의 내용을 모른다 하여 놀이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겐지모노가타리』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 깊이 있게 즐길 수 있는 장치가 곳곳에 산재해 있다. 따라서 『겐지모노가타리』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조향을 즐기면서 재미있고 쉽게 『겐지모노가타리』라는 작품세계를 이해하게 될 수도 있었던 것이다.

향도는 현대까지도 이어 내려와 일본인들에게 향유되고 있으며 겐지향 또한 왕조시대의 분위기와 함께 계승되고 있다. 다도처럼 향도를 연구하는 전문가와 함께 향석(香席)체험과 같은 체험형 강좌도 각지에서 개최되고 있어 문외한인 사람도 겐지향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¹³⁾

13) 보통 체험강좌는 소요시간 2시간 정도에 기본요금이 향 일식(一式) 5000엔에서 10,000엔까지, 인원수별 요금이 일인당 1,000엔이며 기본요금과 인원수별 요금을 더한 요금을 내게 된다. 기본요금은 조향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물론 조향수가 많을수록 가격이 올라간다. 초보자의 경우 보통 가장 싼 5,000엔 기본요금을 추천한다. 横浜茶館 <http://www10.ocn.ne.jp/~cha/kyousitu/kumikou.htm>

2.3.3. 전통문양

전통문양은 일본의 전통의상 기모노에서 유래되었다. 현재 기모노의 원형은 에도시대 사람들이 입었던 ‘고소테(小袖)’이다. 이 고소테를 통해 다양한 전통문양이 창조되었는데 이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부류가 고소테로 멋을 부리기 위해 문양이 발달이 된 것이었다. 당시에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양이 선호되었는데 이는 고소테의 문양을 통해 자신의 지성과 미의식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컸기 때문이며, 또 한편으로 서로의 의상을 뽐내는 의상품평회(衣装比べ)가 자주 열렸던 것도 고소테의 전통문화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따라서 당시의 문화적 아이콘으로서 고전문학적인 분위기를 창출해 내는 문양들이 특히 선호가 되었던 것이다.

또한 에도시대에는 이렇게 기모노의 디자인으로 쓰인 문양을 모아놓은 ‘히나가타본’이라는 문양모음집도 출판되었다. 현존하는 사료 중 가장 오래된 것은 1667년에 출간된 「오히이나카타(御ひいなかた)」이며 1687년에는 「겐지히나카타(源氏ひなかた)」라는 문양모음집도 출간되었다. 이 「겐지히나카타」는 상·중·하 3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권마다 9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특히 상권에 『겐지모노가타리』의 주인공들이 집중되어 있다.¹⁴⁾ 책의 구성은 각 인물과 관련된 문양이 배치된 고소테와 그 고소테를 입은 인물이 함께 그려져 있다. 문양 그림이 그려진 쪽에는 그림과 함께 문양의 종류나 색상, 염색법 등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며, 고소테를 입은 인물이 그려진 쪽에는 그 인물과 관련된 문장도 함께 적혀져 있다. 문양 모음집 이외에 현존하는 실제 고소테를 보면 (株)교토 마루베니(京都丸紅)소장¹⁵⁾의 고소테의 경우 상부에 『겐지모노가타리』의 와카 무라사키(若紫)·하와키기(ははきぎ)·우츠세미(空蟬)·모미지노가(紅葉賀)·스에츠무하나(末摘花)라는 권명이 자수로 쓰여져 있고 아래쪽에는 『겐지모노가타리』의 스마(須磨)로 보여 지는 장면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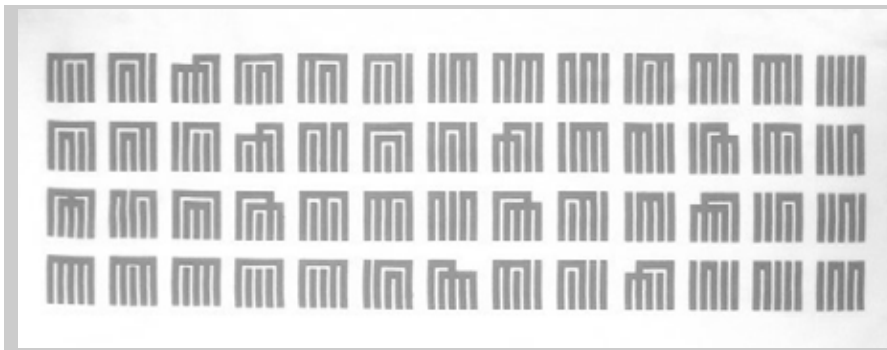
이러한 小袖 문양의 발달은 에도시대의 염색기술과 부유층의 니즈와 밀접한

14) 상권에는 桐壺, ははきぎ, 空蟬, 夕顔, 若紫, 朧月, 明石, 玉鬘, 중권에는 女三の宮, 浮舟가 그려져 있다. 그 밖의 인물은 실제인물인 紫式部, 和泉式部, 小野小町 등도 있다. 沢尾絵(2003), 「小袖の文様」 『源氏物語の変奏曲』 200쪽

15) 제작 시기는 에도시대 중기 경으로 추정.

관계가 있으며 『겐지모노가타리』 문양이 고소테에 그려지면서 문양의 종류도 다양해졌다. 모노가타리 내용을 암시하는 수준에서 한 눈에 『겐지모노가타리』의 장면을 연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것까지 다양했으며 대체로 『겐지모노가타리』의 내용에 충실하게 묘사되었다. 에도시대에 히나가타(ひながた)로 정리되고 실제 고소테 작품으로 현대에 전해지고 있는 『겐지모노가타리』의 문양은 현대 기모노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으며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일본의 전통문양은 앞서 언급한 겐지향도(源氏香図)문양도 매우 다양하게 활용되어 왔다. 일본으로서서는 흔하지 않은 직선적이고 또 기하학적인 겐지향도 문양은 기모노, 보자기, 장식품등은 물론 화과자에서도 인기있는 전통문양으로 응용되어 왔다.



〈그림1〉 겐지향도(源氏香图)문양을 응용한 면수건¹⁶⁾

2.3.4. 화과자 (和菓子)

일본인의 생활문화 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화과자에는 일본의 전통시가인 하이쿠나 와카로 읊어진 정경을 떠오르게 하는 문학적인 과자명이 많다. 이름 뿐 아니라 과자의 모양도 일본의 전통문양과 닮아있어 ‘먹는 예술품’, ‘맛으로 느끼는 계절어’이라 불리울 정도로 단순한 기호품을 넘어서는 예술적 가치와 깊이를 가지고 있다.

화과자는 활기찬 서민(町人)문화를 꽃피웠던 겐로쿠(元禄)시대에 교토를 중

16) 색상은 연두, 보라, 하늘색. 1장당 1,050엔

심으로 큰 인기를 얻기 시작했으며 당시 주된 과자였던 떡이나 떡꼬치와는 달리 매우 고가의 흰설탕으로 만든 과자라 하여 고급과자라는 뜻의 상과자(上菓子)로 불리었다. 화과자는 다도나 향도 등의 전통예능에 전문성을 가진 가문의 귀족들이나 부유한 상인층의 미의식과 함께 더욱 세련미를 더해가며 예술적 가치를 갖기에 이르렀다. 또한 화과자 역시 견본집이나 책으로 화과자의 이미지가 활발히 출판되며 인기를 뒷받침하였다. 『난쵸호키(男重宝記)』이나 에즈쵸(絵図帳)와 같은 책자를 보면 전체적으로 고전문학의 세계가 기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명소와 식물이 조합을 이루는 것은 매우 전형적인 모습으로 과자명이 「아라시아마(嵐山)」, 「요시노야마(吉野山)」일 경우에는 벚꽃을, 「다테다(立田)」, 「다카오(高尾)」일 경우에는 단풍을 이미지한 화과자를 만들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고전문학에서의 법칙이 화과자에 그대로 반영되는 배경에는 당시에 이미 고킨와카슈(古今和歌集)나 겐지모노가타리 등 헤이안시대의 고전문학이 교양필수서였고 화과자를 향유하는 사람들이 고전문학에 대한 조예가 깊었기에 가능했던 일일 것이다.

이러한 고전문학의 법칙은 화과자의 색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헤이안시대 귀족들이 서로 색을 겹쳐 입는 겹침색(かさね色)에 근거하는 것으로 이는 여러 색상계 옷을 겹쳐 입음으로써 색의 대비나 조화, 복합적인 색의 변화를 자연관이나 계절관에 근거한 미의식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의상의 겹침색을 화과자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살펴보면 화과자에서는 겹침색 이름을 화과자 이름으로 따 온 경우와 실제 겹침색의 미의식을 화과자에 담은 것을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¹⁷⁾

그러나 고소데 문양에 비하면 화과자는 매우 작은 크기와 설탕 등으로 만들어 진다는 공간적 한계와 재료적 한계로 인해 직접적으로 『겐지모노가타리』를 적극 수용한 형태는 그다지 많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유기리(夕霧), 와카무라사키(若紫)와 같은 『겐지모노가타리』의 권명을 이름으로 한 화과자와 와카야마현(和歌山県)총본가 스루가야(総本家駿河屋)나 도라야(虎屋)에서 전해지는 유가오(夕顔)의 문양은 대표적인 예로 남아있다. 한편 직접적인 표현은 아

17) 虎屋御用記録 http://www.toraya-group.co.jp/gallery/dat01/dat01_014.html (검색일 2010. 1.30)

니더라도 화과자를 즐기는 사람에게 『겐지모노가타리』를 떠올리게 하는 기법도 종종 사용되고 있다. 「사가노(嵯峨野)」라는 이름의 화과자는 원래 와카에서도 읊어지는 교토의 지명이지만 『겐지모노가타리』의 사카키(賢木)卷에서 히카루겐지가 로쿠쥬노미야스도코로(六条御息所)를 방문한 곳으로 풍취가 떠오르는 곳이다. 또한 겹침색의 이름이 붙여진 화과자는 다마카즈라(玉鬘)卷에서 히카루겐지와 무라사키노우에(紫の上)에가 신년의 기모노를 마련하는 장면을, 발(御簾)모양을 모티브로 따 온 화과자는 와카나(若菜)上卷에서 가시와기가 올려진 발 사이로 온나산노미야(女三宮)의 모습을 보게 되는 운명적인 장면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겐지모노가타리』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모노가타리의 세계를 화과자를 통해 떠올리며 모노가타리의 정취와 함께 더욱 화과자의 맛을 깊이있게 음미할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겐지모노가타리』를 연상시키는 화과자들이 과거에 머물지 않고 에도시대를 넘어 현재까지도 새롭게 창작되며 상품화되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천황가 전용 화과자점으로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도라야(虎屋)에서는 21세기에 들어와 두 번의 ‘겐지모노가타리와 화과자전’라는 특별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다. 2003년에 개최된 전시회에서는 겐지도향(源氏香図)를 화과자로 만들고 헤이안시대의 과자를 복원하기도 했으며 2008년에는 겐지모노가타리 천년기위원회(源氏物語千年忌委員会) 후원으로 화과자로 그리는 『겐지모노가타리』를 선보였다. 즉 『겐지모노가타리』의 정경을 떠올릴 수 있는 과자를 창작한 것이다. 에도후기에 창업한 도라야에는 『겐지모노가타리』를 소재로 표현하는 화과자 디자인과 화과자명이 선대로부터 전해져 오고 있다.

한편 에도후기인 1865년에 창업한 간순도훈포(甘春堂本舗)에서도 2008년 천년기 기념으로 『겐지모노가타리』의 세계를 화과자로 표현했다. 과자로 만든 대기인 하쿠쥬야키(白寿焼)에 『겐지모노가타리에마키』그림을 넣고, 겐지향을 모티브로 만든 과자인 「겐지의 선율(源氏の調べ)」가 그것이다. 18)

18) 白寿焼 1개, 源氏香과자 2개, 과자로만든 천년매듭 2개 세트)1260엔, (白寿焼 2개, 源氏香과자 4개, 과자로만든 천년매듭 4개 세트)2500엔. 源氏香 문양을 모티브로 만든 源氏の 선율(源氏の調べ)1050엔. 그 밖에 若紫를 모티브로 한 京若紫(개당 126엔), 『겐지모노가타리』의 권명을 따 온 夢の京浮橋(개당 116엔)등이 있다. 株式会社 甘春堂本舗 http://www.kanshundo.co.jp/sweet/dry/gengi/spr_index.htm (검색일 2010.1.30)



〈그림 2〉 白寿焼세트(左)와 源氏の 선율(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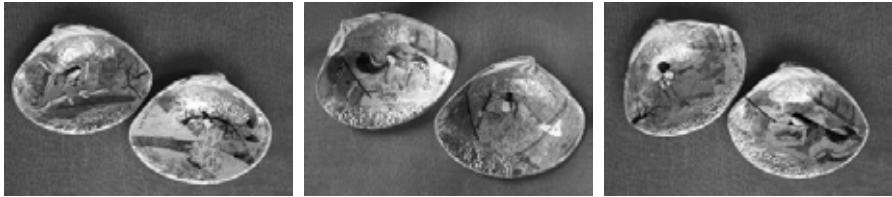
2.3.5. 놀이문화

『겐지모노가타리』는 놀이문화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부회합의 상징인 합각맞추기(貝合わせ), 부채던지기놀이(源氏投扇興), 글씨나 와카의 공부를 겸할 수 있는 쌍륙(源氏双六)등 『겐지모노가타리』에서 파생된 다양한 놀이문화가 형성되었다.

합각맞추기(貝合わせ)는 이미 헤이안시대 말기에 등장하였으며 합각(蛤殼)이 서로 다른 조각비와는 절대 안 맞고 쌍으로만 맞는 특징때문에 궁합이 잘 맞는 원만한 부부사이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합각맞추기 놀이는 맞는 조각비를 맞추면 안에 그려져 있는 그림도 서로 맞도록 되어 있어 쌍조각비를 찾는 게임이다.



〈그림 3〉 합각맞추기 놀이 모습(左)과 금박합각(源氏物語繪卷시리즈, 右)



〈그림 4〉 합각 안에 그려진 『겐지모노가타리』왼쪽부터 宴, 紅葉賀, 若菜卷¹⁹⁾

또한 에도시대가 되면서 지방영주의 딸 혼례 시 매우 중요한 혼수품으로 인식되면서 합각쌍을 특별히 발주하여 합각상자에 넣어 지참하도록 하는 관습이 있었다. 이러한 관습의 영향으로 현재에도 혼례 시나 기념품용으로 합각을 선물하는 예도 있어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합각제작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합각제작은 금박을 사용하거나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특성 상 합각맞추기 놀이가 매우 호화로운 놀이인데 반하여 좀 더 대중적인 놀이에도 『겐지모노가타리』가 적극 수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본의 딱지놀이라 할 수 있는 카루타(歌留多)²⁰⁾와 부채던지기놀이(投扇興), 쌍륙(雙六)등의 놀이문화에서도 『겐지모노가타리』가 향유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먼저 카루타는 와카의 앞구와 뒷구를 각각 한 장씩 나누어 쓴 다음 뒷구를 쓴 카드를 펼쳐놓고 시 낭독자가 앞의 구를 읽으면 그것을 듣고 뒷구가 쓰여진 카드를 찾아내는 게임이다. 보통 오구라 하쿠닌잇슈(小倉百人一首)로 정월에 많이 하며 학교 동아리가 있을 정도로 일본인에게는 매우 친숙한 놀이이다. 『겐지모노가타리』관련 카루타를 보면 『겐지 카루타 에아와세(源氏歌留多繪合せ)』가 있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겐지모노가타리』의 권명과 그림을 그린 딱지를 기리츠보(桐壺)卷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카루타 또한 겐지향도(源氏香圖)를 활용하여 『겐지모노가타리』의 권명과 와카를 맞추는 방식의 게임과 권명과 아랫구로 향도(香圖)를 맞추거나 순서대로 나열하는 등의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아래 사진은 현재 시판되고 있는 겐지향도(源氏香圖)카루타이다.²¹⁾

19) (10cm)金箔貝袋、桐箱付き 한 쌍에 24,000엔

20) 원어는 carta라는 포르투갈어.

21) 카드 : 65mm×65mm, 三枚組53 set 計159枚, 2,700円(税別)



〈그림 5〉 源氏香圖 카루타

한편 부채던지기놀이(도센료:投扇興)란 에도시대에 시작되었으며 주로 연회에서 많이 했던 놀이이다. 게임방식은 받침 위에 「나비(蝶)」라 불리는 목표물을 두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부채를 던져 떨어뜨리는데 그 때 목표물이 떨어지는 모습이나 부채가 어느정도 퍼져 있는나 등을 보고 『겐지모노가타리』의 권명에 따라 점수를 가리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쌍륙이란 두 개의 주사위의 낫수에 따라 말을 써서 승부를 겨루는 실내 게임의 하나이다. 『겐지모노가타리』와 관련있는 그림쌍륙(繪双六)는 크게 두 가지 계통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겐지 카루타 에아와세(源氏かるた絵合)」²²⁾처럼 『겐지모노가타리』의 권명 혹은 권명과 연관이 있는 와카, 겐지향(源氏香)등이 그려져 있는 쌍륙이다. 또 한쪽은 『이나카겐지』를 모티브로 한 그림쌍륙이다. 이런 그림쌍륙은 주사위를 던져 나온 숫자만큼 말을 앞으로 전진시키는 「돌림쌍륙(廻り双六)」과 나온 숫자가 나타내는 곳으로 건너뛰는 「건너뛰쌍륙(飛び双六)」이 있다. 보통 『修紫田舎源氏』와 연관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쌍륙은 후자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많다.

지금까지 『겐지모노가타리』의 확장 사례로 생활문화콘텐츠들을 살펴보았다. 실로 다양한 형태로 『겐지모노가타리』가 일본인의 생활문화 속에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확장사례들이 보여주듯이 『겐지모노가타리』의 모티브를 따 오거나 발전시키거나 재창조하고자 하는 근저에는 옛 왕조이야기와 그 이야기 속에 살고 있는 귀족들의 삶이나 가치관에 대한 동경이 자리하고 있으며 『겐지모노가타리』라는 세계를 빌어서 현재의 자신을 표현하고자 함

<http://www.monkaruta.jp/series/genjikou.html>

22) 東京学芸大学図書館所蔵

을 알 수 있다.

2.4. 대중문화콘텐츠로의 확장 사례

현대로 들어오면서 멀티미디어의 발전과 함께 『겐지모노가타리』도 다양한 형태의 대중문화콘텐츠로 거듭나며 새로운 『겐지모노가타리』로서 재창조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영화와 드라마, 만화와 애니메이션으로 가공되고 유통된 『겐지모노가타리』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2.4.1. 영화

『겐지모노가타리』의 첫 영화화는 다이에이(大映)에서 제작하고 1951년 11월 2일에 개봉된 「겐지모노가타리」이다. 상영시간 124분의 이 흑백영화는 흑백영상의 아름다움으로 『겐지모노가타리』의 세계와 일본의 미의식을 매우 수려하게 담아낸 명작이다. 이 영화는 大映영화사가 창립 10주년 기념작으로 총력을 기울여 제작한 대작으로 호화 7대 스타의 캐스팅으로 화제가 되었고 투입된 제작비 중 새로 제작한 의상비만 무려 1천만엔을 훌쩍 넘었을 정도였다. 감수에 다니자키 준이치로(谷崎潤一郎), 교열에 무라사키시키후학회(紫式部学会)의 이케다 기강(池田亀鑑)교수가 참여하는 등 풍속, 건축, 정원, 춤과 음악에 이르기까지 전문가에 의한 철저한 고증이 이루어졌으며 신도 가네토(新藤兼人)극본, 요시무라 고자부로(吉村公三郎)감독이라는 일급 제작진도 갖추었다. 주연배우는 당대 최고 미남스타로 인기가 높았던 하세가와 가즈오(長谷川一夫)가 당시의 미의식인 다정다감한 히카루겐지(光源氏)를 훌륭히 연기해냈다. 첫 영화화임에도 전반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작품으로 제작되어 1952년 칸느영화제 촬영상을 수상했다. 영화잡지 『기네마준포(キネマ旬報)』의 1951년도 제25회 영화 베스트 10 중 7위를 기록했으며, 51년도 배급수입 1위(1억 4,105엔)라는 기록도 남겼다.

첫 영화화 이후 5년이 지난 1957년 4월 30일, 이번에는 「겐지모노가타리 우키후네(浮舟)」가 컬러영화로 개봉되었다. 「우지쥬쥬(宇治十帖)」의 여주인공 우키후네를 히로인으로 한 호쥬 히데지(北条秀司)의 동명희곡을 영화한 것이다. 남자 주인공은 첫 영화때와 같은 하세가와 가즈오(長谷川一夫)가 이번에는 히

카루겐지(光源氏)의 적자(嫡子)인 가오루노키미(薫の君)를 연기했다. 제작은 다이에이영화사, 감독은 기누가사 데이노스케(衣笠貞之助)가 맡았다.

1961년 10월 14일에는 전편들과 같은 다이에이영화사에서 제작한 「신겐지모노가타리(新源氏物語)」가 개봉되었다. 이 영화는 신초사(新潮社)의 「슈칸분슈(週間文春)」에 연재했던 가와구치 마츠타로(川口松太郎)의 동명소설을 영화화한 것이다. 감독은 모리 가즈오(森一生), 남주인공 히카루겐지 역에는 이치카와 라이조(市川雷蔵)가 분했으며 여주인공 후지츠보(藤壺)와 기리츠보(桐壺)배역인 스미하나요(寿美花代)는 다카라즈카가극단에서 출연하여 화제를 모았다.

그 다음 1966년 1월 14일 개봉한 「겐지모노가타리」는 제작 겐지영화사(源氏映画社), 배급 닛카츠(日活), 제작/감독/극본 다케치 데츠지(武智鉄二)에 의해 일본문학사상 최고의 플레이보이인 히카루겐지의 여성편력에 초점이 맞추어 섬세하게 그려졌다. 당시 최고의 여배우였던 아사오카 루리코(浅丘ルリ子), 아시카와 이즈미(芦川いづみ)등 호화캐스팅이 화제가 되었다.

1966년 이후로 영화화되지 않았던 『겐지모노가타리』가 밀레니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화제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2001년 12월 15일에 개봉한 「천년의 사랑 히카루겐지모노가타리(千年の恋 ひかる源氏物語)」가 그것이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제작위원회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제작을 『천년의 사랑프로젝트위원회』²³⁾가 맡았고, 35년만의 『겐지모노가타리』영화라는 점, 밀레니엄 세기와 함께 개봉된다는 점, 도에이(東映)영화사 창립 50주년 기념작이라는 의미에서 개봉 전부터 많은 관심이 모아졌다. 또한 과거의 영화와는 달리 히카루겐지 역을 다카라즈카가극단의 남자전문배우였던 아마미 유우키(天海祐希)가 맡으면서 무라사키노우에(紫の上)역할의 도키와 다카코(常盤貴子)와 여성끼리의 정사장면에 논란이 일었고, 일세를 풍미했던 전 아이돌 여가수 마츠다 세이코(松田聖子)의 오리지널 캐릭터 아게하노키미(揚げ羽の君)로 인한 원작과의 괴리감 문제 등이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영상미와 한 벌에 500만엔으로 호가하는 호화의상과 3억엔이 투자된 건축미술 등 일본영화 기술의 진수와 최첨단 디지털기술을 집약된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기도 했다.

23) 제작위원회에는 東映・加賀電子・サミー・丸紅・テレビ朝日・電通・日本出版販売・東映ビデオ・TOKYO FM・朝日新聞社・朝日放送 등 미디어관련 기업이 대거 참여했다.

이상 장편영화로 제작된 『겐지모노가타리』의 영화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 영화들은 미디어믹스 전략에 따라 닛카츠(日活)판 「겐지모노가타리」만 제외하고 모두 이차이용이 활발히 이루어진 콘텐츠가 되었다.

2.4.2. 드라마 -TV드라마, 라디오 드라마

『겐지모노가타리』는 그 명성답게 드라마로도 다수 제작되었다. TV드라마는 지금까지 8차례 드라마화되었다. 주로 TBS계열과 NHK계열에서 제작되었다. 8개 드라마 중 절반인 4개 드라마가 TBS계열에서 방송되었다.

「東芝日曜劇場 第19回 우키후네(浮舟)」²⁴⁾

「東芝日曜劇場 第72回 ミュージカル・コメディー源氏物語」²⁵⁾

「資生堂スペシャル 源氏物語」²⁶⁾

「TBS創立 40周年記念番組 橋田寿賀子スペシャル 源氏物語 上の巻/下の巻」²⁷⁾

TBS 이외의 방송국에서 방송된 드라마는 다음과 같다.

「源氏物語」²⁸⁾ 방송국계열 : ANN

「幻・源氏物語絵巻」²⁹⁾ 방송국계열 : NHK

「源氏物語 「あさきゆめみし」」³⁰⁾ 방송국계열 : NHK

24) 1957년 4월 7일 단일방송으로 1회 방송. 放送時間 日曜日 21:00~22:00. 作 北条秀司

25) 1958년 4월 13일 단일방송으로 1회 방송. 放送時間 日曜日 21:15~22:15.

26) 1980년 1월 3일 단일방송으로 1회 방송. 放送時間 木曜日 21:05~23:55 연출 久世光彦, 극본 向田邦子, 남주인공 沢田研二 등 제작진 및 호화 출연진들로 화제를 모음.

27) 1991년 12월 27일 · 1992년 1월 3일 2회 방송. 放送時間 金曜日 19:00~22:48 作 橋田寿賀子, 演出 鴨下信一, 衣裳監修 坂東玉三郎

28) 放送期間 1965년 11월 18일~1966년 5월 12일(東京地区 5월 26일)放送回数 26회. 放送時間 木曜日 21:00~21:30. 監修 市川崑 演出 市川崑、池田徹朗、西前充男、青木民男. 脚本 田中澄江、林馬呂、畑中国明、沼田幸二、大藪郁子、宮川一郎、小松崎公朗、早坂暁、谷川俊太郎. 出演 伊丹十三、小山明子、山本学、田村正和

29) 放送期間 1993년 3월 20일 단일방송으로 1회 방송. 放送時間 土曜日 21:15~21:55 演出 伊予田静弘 脚本 岸宏子

30) 放送期間 2000년 3월 19일 단일방송으로 1회 방송. 放送時間 日曜日 20:22~21:25. 原作 大和和紀 「あさきゆめみし」 脚本 唐十郎. 출연 宝塚歌劇 배우

『怪談百物語第10話 怪談源氏物語』³¹⁾ Key 방송국 C X

영화든 드라마든 『겐지모노가타리』가 영상화될 때는 뭔가 큰 기념비적인 일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제작 측의 창립 몇 십주년인 경우가 가장 많다. 그만큼 일본인들의 인식 속에 『겐지모노가타리』는 매우 특별한 날에 잘 어울리는 특별한 문화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겐지모노가타리』의 라디오드라마는 상당수 방송이 되었으나 현재 음성이나 자료를 참고할 수 없어 논외로 하였다.³²⁾

2.4.3. 만화/애니메이션

『겐지모노가타리』의 현대적 의미의 만화가 가장 먼저 나온 것은 1970년 「신판 겐지모노가타리(新版 源氏物語)」이었다. 이후 1974년에 요사노 아키코(与謝野晶子)의 「신신역(新新訳) 겐지모노가타리」를 인용한 『겐지모노가타리』가 Ake-BonoComics에서 출판되었다.

그 후 1980년부터 1993년까지 『겐지모노가타리』의 만화로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아마토 와키(大和和紀)의 「아사키유메미시(あさきゆめみし)」가 고단샤(講談社)에서 출간되었다. 「아사키유메미시」는 이후 대단한 인기에 힘입어 1권에 9,060엔에 달하는 호화애장판(豪華愛蔵版) 全 7권이 1987년부터 출간되었고, 1993년부터는 같은 고단샤(講談社)로부터 보존판 全 7권이, 2000년부터 2001년부터는 「아사키유메미시-Bilingual판 (あさきゆめし-バイリンガル版)」이라는 일본어와 영어로 된 버전이, 2001년에는 「겐지모노가타리 아사키유메미시」 고단샤 만화문고판 全 7권이 시리즈로 출간되었다. 그리고 『겐지모노가타리』 천 년기에 맞추어 2008년에는 「아사키유메미시 완전판」이 1권에서 10권까지 출간되었다. 아마토 와키(大和和紀)의 「아사키유메미시(あさきゆめみし)」는 2008년 집계로 1700만부 돌파라는 경이로운 판매고를 올린 작품이다.

31) 放送日 2002년11월26일 단일방송으로 1회 방송. 放送時間 火曜日19:59~20:54. 脚本 十川誠司 演出 小林和宏

32) 드라마의 제목 및 방송시간 등의 기초적 정보는 源氏物語加工文化データベース http://homepage3.nifty.com/genji_db/radio.htm 참조.(검색일 2010.1.30)



〈그림 6〉 「あさきゆめみし」 왼쪽부터 순서대로 출간됨.

『겐지모노가타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오랫동안 수험생이나 학생들의 애독서로 유명했던 이 작품은 다카라즈카가극단에 의해 무대에 올려지는 등 다양한 형태의 2차이용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³³⁾

그 밖에 출간된 『겐지모노가타리』 관련 만화들을 살펴보면 먼저 아동용 혹은 청소년용 교육서로서의 만화가 다수 출판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는 대상은 청소년이나 아동에 국한하지 않고 『겐지모노가타리』를 빠른 시간에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만화들도 꾸준히 출판되고 있다. 홍보문구에는 ‘이 한권만 읽으면 『겐지모노가타리』 전부를 읽은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등의 표현들이 보인다. 그리고 『겐지모노가타리』를 사랑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서 풀어가는 만화들도 큰 부류를 이루고 있다. 개중에는 성인용 만화라고 할 만한 수위까지도 보인다.³⁴⁾

이렇게 현대에서 보여지는 만화로서의 수용은 그림과 함께 다이제스트판을 읽으며 『겐지모노가타리』를 이해하고 심지어 춘화로까지 수용되었던 에도시대

33) ザ・テレビジョン http://blog.television.co.jp/entertainment/entnews/2008/09/20080902_05.html (검색일 2010.1.30)

34) 다양한 만화들의 기초적 정보는 源氏物語加工文化データベース http://homepage3.nifty.com/genji_db/manga.htm 참조(검색일 2010.1.30)

의 독자들의 모습과도 흡사하다. 『겐지모노가타리』는 이렇듯 고급문화에서 하급문화까지 확장되며 다양한 형태로 문화콘텐츠화되어 향유되고 비즈니스가 성립하는 매우 특징적인 문학작품인 것이다.

Ⅲ. 문학의 문화콘텐츠로의 확장 기반 및 전략

지금까지 일본의 고전문학 『겐지모노가타리』가 어떠한 문학확장의 양상으로 문화콘텐츠화되어 일본인의 문화예술과 생활문화에 녹아들고 있으며 콘텐츠로서의 무궁무진할 발전양상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그러한 『겐지모노가타리』로서 보여지고 있는 문학의 문화콘텐츠로의 확장 기반이 무엇이며, 우리의 우수한 한국문학이 재미있고도 수준높은 문화콘텐츠로 확장되어 발전해 가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찰해 보고자 한다.

3.1. 전문가의 역할 - 학회의 역할

쇼와에 들어오면서 『겐지모노가타리』의 대중화가 급속도로 진전되는 가운데 『겐지모노가타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 결성된 「무라사키시키후학회(紫式部学会)」의 역할은 문학의 콘텐츠화 전략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무라사키시키후학회는 1932년 6월 4일에 『겐지모노가타리』로 대표되는 일본 고전문학의 계몽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회이다. 학회 설립 목적에 ‘계몽’이라고 명시되어 있듯이 무라사키시키후학회는 고전문학의 계몽을 위해 『겐지모노가타리』 대중화의 선봉에 선다. 지속적인 『겐지모노가타리』 강연회 개최와 출판물 간행 등의 활동과 함께 영화나 가부키와 같은 문화콘텐츠 창작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일본군부에 의한 『겐지모노가타리』 탄압의 시절을 겪고 난 후 쇼와 20년대에 쇼와의 첫 젠지붐이 일어나게 된다. 이 시기에 『겐지모노가타리』의 출판, 가부키연극, 영화, 라디오드라마들이 다발적으로 유행을 하며 다양한 미디어믹스 전략 속에서 『겐지모노가타리』의 문화콘텐츠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 시기에 도 학회 등 전문가들의 역할이 기여하는 바가 컸다. 1951년 11월 2일에 개봉된

『겐지모노가타리』의 첫 영화 「겐지모노가타리」는 다이에이영화사 창립 10주년을 기념해서 제작된 작품으로 당대 최고 배우와 함께 최고의 제작진들을 포진하여 제작되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영화에 『겐지모노가타리』의 현대어번역서를 출간한 다니자키준이치로가 감수를 담당하고 무라사키시키키부의 이케다 기강교수가 교열을 담당하였다. 또한 영화 뿐만 아니라 일본의 전통연극 가부키 공연에서도 무라사키시키키부학회는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1951년 3월 공연된 가부키자 준공기념 가부키공연을 전면적으로 지원했다. 이는 일찍이 무라사키시키키부학회에서 1933년에 후원했던 가부키 「겐지모노가타리」가 끝내 상연되지 못하였던 것을 2차대전 이후 가부키자에서 상연을 이루게 된 것이다.³⁵⁾ 무라사키시키키부학회의 가부키자 지원은 극 내용에 관한 지원에 그치지 않고 관객동원에 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하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무라사키시키키부는 가부키공연 시기에 맞춰서 『겐지모노가타리』 연속강좌를 도쿄대학교 교실에서 지속적으로 개최하였고, 1950년 9월부터는 아사히신문사 강당에서 강좌를 개최하였다. 대성황리에 개최되었던 『겐지모노가타리』강좌는 입석이 나올 정도로 인기를 구가했다.

이렇게 무라사키시키키부학회는 영화나 연극에 대한 지원과 함께 『겐지모노가타리』 강좌와 강연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강연회의 청중들과 독자들이 연극이나 영화를 관람하도록 하는 선순환 고리를 조성하는데 일조를 하였다. 이렇게 배움과 즐거움, 교실과 극장을 매개하는 역할을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학회가 바로 무라사키시키키부학회였다.

물론 당시 이러한 무라사키시키키부학회의 행보에 대해 비판론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고전문학의 대중화를 둘러싼 논쟁이 일었고, 『겐지모노가타리』의 인기에 따라 극단끼리 작품을 서로 빼어가려는 사태도 벌어져 이케다교수가 신문을 통해 입장표명을 하기에 이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학회의 역할은 『겐지모노가타리』라는 고전문학을 대중 앞으로 끌고 나와 연극이나 영화와 같은 다양한 콘텐츠로 가공되고 향유되는데 다대한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매우 특이하고도 시사적 바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극 내용에 대한 지원에 머무르지 않

35) 立石和弘(2000) 『『源氏物語』の加工と流通』 『겐지모노가타리』5号, 131쪽

고 강연회 등을 통한 홍보활동까지 학회차원에서 문학의 문화콘텐츠화를 지원하고 유통에 적극 기여했다는 점은 한국의 여러 학회들에게도 귀감이 될 만 하다.

문화콘텐츠와 관련하여서는 한국에서 인문콘텐츠학회가 정부기관과 함께 문화원형의 디지털화 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면서 많은 성과를 이룬 바 있다. 앞으로는 그러한 성과가 보다 효율적으로 쓰이고 대중과 친근하게 다가가면서도 콘텐츠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데 전문가 그룹인 학회가 다양한 방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을 것이다.

3.2. 고급 창작자들의 역할 - 예술가, 장인의 역할

본고에서는 앞서 『겐지모노가타리』가 문화예술콘텐츠로서, 또 생활문화콘텐츠로서 확장되고 향유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러한 상황을 주시해 보면 거기에 학자, 예술가, 장인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계층에서 자신들의 고전문학을 아끼고 향유하고자 하는 노력 - 물론 그것이 순수한 의도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있는 자들끼리의 경쟁이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자신의 권세나 경제력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가 있을지라도 - 그 노력이 기반이 되어 결국에는 문화를 살찌게 하고 예술가와 장인의 예술혼을 불러일으키며 발전시킨다는 점도 일본의 경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또한 출판업 등의 상인들의 마인드도 독자층 확대를 위해 일부 귀족이나 학자들의 전유물이었던 『겐지모노가타리』의 독자층을 과감히 서민층으로 끌어내려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내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시간과 노력을 감소시키고 그림을 삽입함으로써 이해를 쉽게 하고 그 위에 책의 장정과 같은 부수적인 매력을 추가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독자층을 넓히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비즈니스의 성공과도 연결되었으며 문화콘텐츠의 다양화에도 기여를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문학의 문화콘텐츠로의 확장 기반 및 전략을 생각할 때 예술가, 장인, 기술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지속적인 창작활동과 활발한 콘텐츠화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

러한 부분에서는 정부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확대 재생산되어 새롭게 향유되는 문화콘텐츠들에 대해 한편으로는 깊이를 제공하고 또 한편으로는 누구나 재미와 즐거움을 가지고 향유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일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래 사진은 『겐지모노가타리』의 작가인 무라사키시키키부의 로봇, 「MURA-SAKI」이다.



〈그림 7〉 일본 가옥에 맞게 설계된 「MURASAKI」로봇³⁶⁾

이 로봇은 2008년 7월 24일 무라사키시키키부와 인연이 깊은 이시아마사(石山寺)에서 세상에 발표되었다. 이 로봇의 제작자는 다카하시 도모타카(高橋智隆) 씨이며 『겐지모노가타리』천년기 in 호반도시오츠위원회(湖都大津委員会)로부터 제작의뢰를 받아 완성했다고 한다. 위원회는 『겐지모노가타리』가 천년동안 읽혀온 것을 되돌아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천년을 바라보며 감성을 발신할 것을 목적으로 이 로봇제작을 의뢰한 것이다. 로봇 제작자도 로봇은 근미래적이고 모던한 이미지가 강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일반가정에서 로봇이 공존해 가기 위해서는 서양식이 아닌 일본의 건축구조에 편안하게 어울릴 수 있는 존재여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번 기회에 일본의 전통을 살린 로봇제작에 도전해 보게 되었다고 피력했다. 향후 MURASAKI 로봇은 지금 들고 있는 부채에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하고 『겐지모노가타리』의 낭독도 할 수 있도록 좀 더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문학 확장의 매우 상징적인 시도가

36) 신장 31cm, 체중 약 1.5kg, 양팔과 목을 움직이며 감정표현을 하고 말을 하면 눈은 파랗게 입가는 빨강계 LED 등이 켜지도록 되어 있다. 얼굴도 정면으로 보면 쿨하고 지적인 인상이지만 여성인 만큼 각도에 따라서는 부드러운 표정이 보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 MURASAKI 로봇은 자신이 쓴 『겐지모노가타리』의 첫 부분을 암송하기도 한다.

아닐 수 없다.

3.3. 미디어믹스 전략과 매스미디어의 역할

일본에서 천년동안 『겐지모노가타리』가 확장되고 재창조되며 향유되어 온 것은 꾸준한 <겐지 붐>이 형성되어 왔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먼저 에도시대의 겐지붐은 인쇄술 발달에 따른 출판문화의 영향이 크다. 특히 1829년에 초판이 출판된 「니세무라사키 이나카겐지(修紫田舎源氏)」의 인기가 큰 역할을 담당했으며 그 붐은 메이지 초기까지도 지속되었다. 「이나카겐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려한 글과 미려한 그림, 장정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서민들에게는 『겐지모노가타리』의 주인공 히카루겐지(光源氏)보다 변안소설의 「이나카겐지」의 주인공인 미츠우지(光氏)가 더 유명했다고 전해질 정도로 그 인기는 가히 폭발적이었다. 이에 따라 가부키 배우 8대 이치카와 단쥬로(市川團十郎)가 「이나카겐지」를 기반으로 한 「겐지모요 후리소데 히나가타(源氏模様娘雛形)」를 무대에 올려 대성공을 거두게 된다. 이 무대에서 사용되는 세트도 의상도 모두 구니사다(国貞)의 그림을 모티브로 디자인 되어 있어 책과 가부키의 상승효과로 인하여 폭발적인 겐지붐이 일어나 메이지 초반까지도 그 붐이 이어졌다고 한다. 아름다운 기모노와 호화로운 물품들에 둘러싸인 미츠우지와 여성들을 보면 출판사도 실력 있는 장인을 두고 일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대유행은 지방영주부터 무사들, 그리고 일반 서민들에게까지 기모노와 미츠우지 특유의 수염, 담뱃대와 같은 도구들까지도 유행으로 만들어 지기도 했다. 소설 속 그림에서 시작된 우키요에(浮世繪)가 큰 유행을 만들어 낸 매우 특이한 예라 할 수 있다.

메이지 이후에는 현대어 번역본과 영어판 번역이 나오면서 『겐지모노가타리』가 인기를 끌었고, 쇼와에 들어와서 20년대에 단속에서 벗어나 겐지붐을 형성하게 된다. 이 쇼와 20년대(1945~1954)의 겐지붐은 출판, 연극, 영화, 라디오 드라마와 같은 미디어복합형 유행을 형성하며 현대 겐지 붐의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 다니자키의 현대어번역, 영화와 가부키와 같은 문화콘텐츠와 백화점에서 연계한 전시회, 신문사의 홍보와 학회와 연계된 교육과 감상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쇼와의 겐지붐은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킨 것이다. 특히 이때 아사히신문사(朝日新聞社)가 특별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아사히신문사 문화사업단은 무라사키시키후학회와 일본문예가협회와 함께 가부키자의 『겐지모노가타리』 연극을 적극 후원하면서 매우 활발한 홍보활동을 펼쳤던 것이다. 강연회장 제공은 물론 당대 최고의 겐지학자들과 가부키배우들을 초청하여 『겐지모노가타리』 특별강연회³⁷⁾를 개최함으로써 가부키공연 흥행에 큰 역할을 하였다. 강연회의 청중들에게 특별할인 특전을 줌으로써 가부키입장권 3천장을 강연회를 통해 판매를 하기도 했다.

밀레니엄을 지나 헤이세이(平成)의 겐지붐은 어떻게 일어났을까. 2008년은 『겐지모노가타리』에 대한 최초의 기록으로부터 천년 제가 되는 해였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겐지모노가타리』 천년기(千年紀)라고 하며 일본전체가 들썩인 겐지붐이 몇 년간 계속되었다.

1008년(寛弘五年)11월 1일, 이치조천황과 중국 쇼시 사이에 태어난 아츠나리 친왕 탄생 50일 축하연이 외조부인 미치나가 저택에서 거행되었다. 아츠나리친왕은 황태자가 된 후 즉위(후의 고이치조천황)할 친왕이었기에 그 축하연의 성대함은 가히 짐작할 만하다. 무라사키시키후일기(紫式部日記)에 그 때 축하연에 관한 기술이 있다. 가인으로서도 이름을 날리던 후지와라노 긴토(藤原公任)가 ‘실례지만 이 부근에 와카무라사키가 계실 터인데요 (あなかしこ、このわたりに、若紫やさぶらふ).’ 라며 술기운에 미치나가가의 노보였던 무라사키시키후의 거처를 찾았다는 유명한 기사가 있다. 여기서 긴토가 ‘와카무라사키’라고 한 것은 『겐지모노가타리』를 염두에 둔 말임은 분명하다. 무라사키시키후는 ‘히카루겐지와 닮은 사람도 안 계시는데 더구나 와카무라사키라니 (源氏に似るべき人も見え給はぬに)’라고 생각은 했으나 대답은 안 했다고 일기에 남기고 있다. 이 기사는 『겐지모노가타리』의 작가가 「무라사키시키후」라고 불리는 계기가 된 것을 나타내며, 작가의 지위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인지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³⁸⁾ 이 기록을 근거로 하여 2008년이 『겐지모노가타리』 성립

37) 折口信夫、久松潜一、池田亀鑑을 강사진으로 초청하고、市川猿之助 등 『겐지모노가타리』 연극 출연진 7명과 함께 강연회를 개최 함.

38) 三田村雅子(2008), 『記憶の中の源氏物語』, 新潮社15-16쪽

천년을 맞이하는 기념비적인 해로 본 것이다.

이에 앞서 2007년 1월 「겐지모노가타리천년기위원회(千年紀委員会)」가 발족되었고 4월 27일에는 「겐지모노가타리천년기사무국」이 교토와 도쿄에 개설되었다. 이 위원회에는 『겐지모노가타리』의 고향인 교토부(京都府)와 교토시(京都市), 우지시(宇治市), 교토상공회의소(京都商工会議所)를 비롯하여 긴키(近畿)지방의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청이 참여하여 상호 유기적인 지원체계를 갖추었다. 주최사업, 공동개최사업, 후원사업, 협찬사업으로 나뉘어진 각각의 사업 취지와 목적에 따라 위원회가 사업자 지원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사업자가 협찬금이나 물품을 위원회에 제공하기도 하였다. 2009년 공식홈페이지가 폐쇄됨으로써 겐지모노가타리천년기사업은 종료되었지만 위원회는 「고전의날추천위원회」로 위원회명을 변경하고 11월 1일을 고전의날로 제정하고 향후 국경일로 제정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렇게 보면 에도시대의 이나카젠지부터 헤이세이의 겐지붐까지 겐지붐은 항상 출판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왔다. 미디어믹스 전략으로 출판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강연회, 심포지움과 같은 교육적 차원의 행사와 전람회나 박물관 전시 등의 문화향유를 병행하고 가부키나 노(能), 극단의 극문화도 연계되고 영화, 애니메이션과 같은 대중문화콘텐츠와 DVD등의 이차이용까지 매우 복합적인 전략을 붐을 이끌어온 것을 볼 수 있다.

천년기위원회는 더욱 조직적으로 실제 상업인들에게 혜택을 부여하여 더욱 다양하고 양질의 『겐지모노가타리』관련 문화콘텐츠를 창작하도록 유도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IV. 나가며

원래부터 『겐지모노가타리』의 향유층은 『겐지모노가타리』 원문을 독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문가층과 그러한 능력은 부족하지만 『겐지모노가타리』의 분위기를 향유하며 만족감을 갖는 비전문가층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겐지모

『노가타리』가 1000년이 넘는 세월동안 일본의 대표 문학으로 그치지 않고 일본의 문화사를 관통하는 미의식과 문화사적 향유를 이루어 왔던 배경에는 이러한 전문가들에 의한 끊임없는 재창작을 충분히 받쳐줄 수 있는 비전문가들의 향유 기반이 저변에 깔려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식인들을 통해서 『겐지모노가타리』를 향유하는 것이 고급문화와 접하는 길이 되고 교양 있는 행위로 포장되는 코드도 1000년 동안 꾸준히 생성되고 유지되어 왔던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전 불경하고 천황에 모욕적인 문학이라는 이유로 군부에 의해 탄압의 대상이었던 『겐지모노가타리』는 패전과 함께 맞이한 전후 일본에서 전쟁으로부터의 해방을 상징하는 기호로서 기능하고 왕조 문화와 귀족생활에 대한 동경을 자극하면서 겐지 붐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던 것이며, 그러한 토대가 있었기에 『겐지모노가타리』가 다양한 문화콘텐츠로서 변용되고 확장되어 널리 향유될 수 있었던 것이다. 더불어 『겐지모노가타리』라고 하는 킬러콘텐츠에서 파생되고 변용되고 재창조되는 문화콘텐츠들은 그 전체상과 가짓수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방면에 걸쳐 생성되고 향유되고 있다. 그러한 유형 무형한 콘텐츠들이 모여져서 『겐지모노가타리』가 세계적인 킬러콘텐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계에 통용될 수 있는 한국의 킬러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화 사업의 목적은 순수예술 및 인문학의 문화원형을 디지털화, 즉 창작 소재화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창작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으로 되어 있다. 이미 개발이 완료된 전통문화요소들은 다양한 문화콘텐츠 장르의 창작소재를 공급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 활용을 위해 제공하고자 하는 ‘문화콘텐츠’라 함은 영화, 만화, 게임, 방송, 애니메이션, 문예 창작 부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살펴 온 『겐지모노가타리』의 콘텐츠화 작업 중 대체로 대중문화콘텐츠로의 확장사례에서 보여지는 콘텐츠들이다. 그만큼 활용하고자 하는 문화콘텐츠의 폭이 매우 좁다고 볼 수 있다. 보다 광의의, 예를 들어 『겐지모노가타리』의 예에서 보듯이 문화예술, 생활문화 전반에 걸친 콘텐츠들로 개발되고 향유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원형을 활용함에 있어서도 단순한 정보제공 수준에서 그친다거나 단발성 활용에 그칠 것이 아니라 콘텐츠의 확장을 동시에 기획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 상호간의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겐지모노가타리』의 경우에서 보듯이 문학이 가부키라는 극문화로 콘텐츠화되고 그 가부키를 상영함에 있어 현대어 번역을 한 작가가 감수를 담당하고 『겐지모노가타리』를 연구하는 전문가가 교열에 참여하고 나아가서 무라사키 시키부학회(紫式部学会)와 아사히신문사(朝日新聞社), 유명 백화점까지 가부키를 지원하고 홍보와 저변확대에 적극 기여함으로써 겐지붐을 형성하고 지속시켜 나갈 수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미디어믹스 전략에 의해서 더욱더 다양한 시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상승작용을 하게 된다. 요컨대 다양한 킬러콘텐츠를 육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겐지모노가타리』처럼 하나의 킬러콘텐츠에 다양한 분야의 학술, 예술, 기술 등이 결합되어 각각의 장점과 특징을 살린 콘텐츠들이 재창조되고 또 그것이 함께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의 킬러콘텐츠가 될 수 있는 대장금의 경우도 대장금이라는 소재에 한국의 모든 학술과 예술과 기술, 그리고 미디어믹스전략에 브랜딩전략까지 다양한 방면의 장인들이 하나의 콘텐츠로 집결이 되었을 때 더욱 다양한 콘텐츠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재창조되고 향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토대가 확고하면 할수록 대장금이라는 킬러콘텐츠가 더욱 가치를 발하고 한국을 대표하며 오랜 기간동안 사람들에게 감동과 재미를 주는 콘텐츠로서 살아남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연수(2008) 「현대일본문학의 현상(現狀)과 문학 확장 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언어문학 제31집 (2005년 학술진흥재단 지원), 2008년 『학제간 연구를 통한 문학의 확장 가능성 탐구 - 한국, 중국,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의 경우를 중심으로』 글누림 245-273쪽
- 伊井春樹(2007) 特別講演 「源氏物語の読者たち—絵画化と出版」タイ国日本研究国際シンポジウム2007論本報告書, 33쪽
- 沢尾絵(2003) 「小袖の文様」 『源氏物語の変奏曲』, 200쪽
- 立石和弘(2000) 「『源氏物語』の加工と流通」 『겐지모노가타리』5号, 128쪽
 _____ 「『源氏物語』の加工と流通」 『겐지모노가타리』5号, 129쪽
 _____ 「『源氏物語』の加工と流通」 『겐지모노가타리』5号, 131쪽

馬場あき子(1996) 『源氏物語と能』 婦人画報社, 6쪽

三田村雅子(2008) 『記憶の中の源氏物語』 新潮社1, 5-16쪽

山本二郎(1992) 『近代の享受と海外との交流』 「源氏物語」と舞台芸術, 20쪽

이고는 ‘문화관광부, 1억불이상 수출콘텐츠 30개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122290541&sid=010731&nid=007<ype=1> (검색일 2010.1.30)

김미라 ‘한국콘텐츠진흥원, “2009 문화원형 컨퍼런스 개최’, http://www.cadgraphics.co.kr/news/graphic_view.asp?seq=451&page=1&SearchPart=BD_SUBJECT&SearchStr= (검색일 2010.1.30)

あひろ屋 ‘源氏香図[genjikouzu]’ <http://www.ahiroya.jp/shouhin-kouzu.htm> (검색일 2009년1월31일)

貝合わせ KAIAWASE ‘第4回展・2004 源氏物語貝合せ’ <http://www.adachikayoko-japanesedoll.com/kaiawase.html> (검색일 2009년1월31일)

勝木宏、横溝博、藤田哲子、スピアーズ・スコット、藤巻和宏 ‘発表要旨 2007年度4月例会’ <http://www.geocities.jp/wasedachuseinokai/happyoyoshi8.html> (검색일 2009년1월31일)

株式会社北星社開発部事業課 ‘紋かるた 源氏香図’ <http://www.monkaruta.jp/series/genjikou.html> (검색일 2009년1월31일)

甘春堂本舗 ‘甘春堂の銘菓’ http://www.kanshundo.co.jp/sweet/dry/genji/spr_index.htm (검색일 2009년1월31일)

源氏絵 <http://homepage2.nifty.com/ukiyo-e/profile/genji.htm> (검색일 2010.1.30)

源氏物語加工文化データベース http://homepage3.nifty.com/genji_db/radio.htm (검색일 2010.1.30)

ザ・テレビジョン http://blog.television.co.jp/entertainment/entnews/2008/09/20080902_05.html (검색일 2010.1.30)

源氏物語加工文化データベース http://homepage3.nifty.com/genji_db/manga.htm (검색일 2010.1.30)

胡蝶 ‘貝合わせ’ <http://cocyoo.ocnk.net/product-list/7> (검색일 2009년1월31일)

杉田昌彦 ‘本居宣長の源氏学’ 東京大学文学部大学院人文社会系研究科 <http://www.1u-tokyo.ac.jp/cgi-bin/thesis.cgi?mode=2&id=70> (검색일 2009년1월31일)

東京都庁 ‘報道発表資料 [2009年3月掲載]’ <http://www.metro.tokyo.jp/INET/EVENT/2009/03/21j3h101.htm> (검색일 2009년1월31일)

とらや虎屋文庫資料展 ‘第63回 源氏物語と和菓子展’ http://www.toraya-group.co.jp/gallery/dat01/dat01_014.html (검색일 2009년1월31일)

みかわ工房 ‘みかわ工房の金箔仕上げ「貝合わせ」(源氏物語絵巻シリーズ)’ <http://www.coara.or.jp/~hina/4.HINA/2.KATALOG/4kai/1kai.html> (검색일 2009년1월31일)

横浜茶館 ‘香の世界へ’ <http://www10.ocn.ne.jp/~cha/kyousitu/kumikou.htm> (검색일 2009년1월31일)

横浜茶館 ‘投扇興(とうせんきょう)’ <http://www10.ocn.ne.jp/~cha/kotenyugi/tousenkyo/index.htm> (검색일 2009년1월31일)

吉川英治、森田たま、岩佐美代子、畠中恵 ‘文学と投扇興’ <http://www.tosenkyo.net/literary-shosetsu.htm> (검색일 2009년1월31일)

stmx ‘源氏歌かるた’ <http://www.store-mix.com/ko-bai/product.php?pid=1198530> (검색일 2009년1월31일)

- ❖ 투고일 : 2009. 12. 31.
- ❖ 심사일 : 2010. 1. 11.
- ❖ 심사완료일 : 2010. 1. 20.